

제목: "신앙으로의 생활"

말씀: 시편 32편 1-11절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늘 그렇게 살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말을 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모르게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1. _____의 시간이 있습니다.
2. _____의 시간이 있습니다.
3. _____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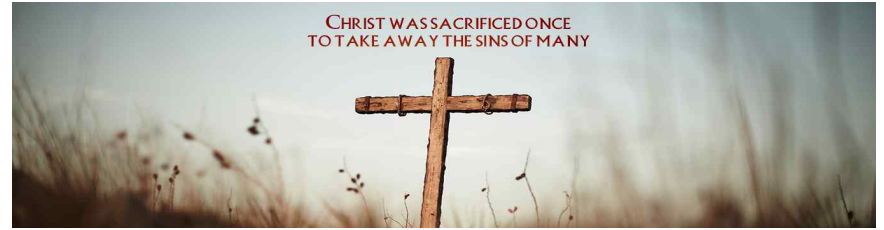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인도: 김성민 목사

12: 30 PM

Presider: Rev. Jason Kim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성경말씀 시편 32편 1-11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Palm 32 1-11 구약 824 페이지 Presider

말씀 "신앙으로의 생활"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Life of Christian Rev. Kim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헌 양복들의 행진)

옷장을 보니 옷이 많이 걸려 있다. 그 중 양복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오랫동안 거의 양복만 입고 살았기 때문이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양복을 입고 교회로 출근하고 퇴근했었다. 그런데 서부로 이사 온 후로는 생활 패턴이 바뀌어 매일 입는 옷이 양복에서 청바지와 티셔츠가 되었다. 그러면서 몇 년이 흘러서 양복을 찾아보니 많은 것이 맞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바지통 사이즈가 많이 달라졌다. 이전과 같이 그렇게 크게 입는 사람이 없다. 만일 그것을 입고 나간다면 사람들이 보고 웃을지도 모른다. 또한 몇 년 간 내 몸무게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전에 맞던 양복 사이즈가 이제는 많이 헐렁하다.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 때에는 배가 지금 보다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복의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러한 가운데 그 많은 양복들을 아직도 옷장에 모셔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 중에 맞는 쪽에 속하는 것을 골라서 한 쪽으로 놓고 도저히 입을 용기가 나지를 않는 것들은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양복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 다시 맞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고 혹시나 유행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을 보니 그럴 것 같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작어지고 구부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몸에 맞는 것을 구입해서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정리한다면 옷장이 훨씬 한가해 질 것이다.

나의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국 촛티를 벗지 못하고 세상을 활보하며 살지 않을까?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새것만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옷으로 상황에 맞게 몸에 맞추어 입고 다닌다면 나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좋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라고 하시며 묵은 것을 털어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새로운 은혜로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여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새로운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 때에 세상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께도 맞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 분은 이민이 열리기 이전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셔서 어려움을 다 겪으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는 이민 오신 분들을 돕고 또한 나이가 들어서는 도움이 필요한 한인 노인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분이다. 한국을 알리기 위하여 음식을 퍼 나르던 분이다. 그분은 늘 교회에 모자를 쓰고 오셨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였다. 그런데 그 분의 마음을 알고는 그것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입는 옷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여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던 분이시다. 얼마나 멋진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하고 세상에서는 훌쩍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신 것이다.

늘 새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입어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이 아닐까? 생각하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오늘은 예배 드린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7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이사

박민수/박선화 Tigard, Oregon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